

## 고린도후서 낫설게 하기를 위한 일례(一例)

필 타우너\*

박형대 번역\*\*

### 1. 서론

이 글의 집필에 네 가지 관심사 혹은 쟁점이 수렴되었다. 첫째, 나는 고린도후서 주석 작업을 이제 막 시작했는데, 요즘 내 앞에는, 바울의 모든 책 중 독특한 이 책의 주석·해석·신학적 문제들이 항상 있다. 둘째, 물론 UBS나 ABS에서는 번역에 내포된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는 결코 성경 본문 주석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고린도후서 번역을 주시할 때, 최종 번역 형성에 어떤 주석적 결정, 신학적 가정, 교회 세력 등이 기여했는지 묻는다. 셋째, 하지만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더 넓은 세계 번역 학계 내에서 보게 된 바와 같이, 성경 번역을 풍성하게 하는 연구방법이다.

내가 보기에, 이러한 풍성함의 한 중심에 이태리 미사노(Misano)에 기지를 둔 나이다(Nida) 학교([www.nidainstitute.org/TheNidaSchool](http://www.nidainstitute.org/TheNidaSchool))의 번역학 프로그램이 있다. 거기서 해마다 열리는 2주간의 연수회에서, 번역학 학자들(그들은 문화번역 및 번역이 문화에 미치는 효과와 해석·더빙 등에 있어서 전문가들이다)과 성경 번역 전문가들은 값진 대화에 참여한다. 그 성과 중 하나는 번역이 문화를 바꾸는 하나의 힘—의도적으로 행사된 힘—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된다는 것이다. 성경 번역은 더 이상 교회 내에만 결과를 나타내는, 단순 활동으로 간주될 수 없다. 그것은 중립적 활동이 아니며 단순히 교회를 이롭게 하겠다는 바람만으로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더욱이, 동기화나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 없이 할 수 있는 활동도 아니다.

넷째, 성경 번역이 번역학과 강하게 맞물리면서 생긴 논리적 결과물이 있다. 바로 번역의 윤리적인 면에 대한 자각이다. 오늘 여기 성경 번역 윤리에 대한 탐구 초반에 나에게 합류한 세 명의 UBS 동료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 지금은, 일종의 권력 행사라 할 수 있는 번역의 성격으로 인해, 그 활동 자체에 대한 온갖 질문들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어떤 형태의 고린도후서 번역에 대한

\* 미국성서공회 나이다 연구소 소장.

\*\*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교수, 신약학.

나의 의문은, 실제로는 번역문과 그것이 청중에게 미칠 잠재력에 대한 윤리적 탐구가 된다. 여기에는 정확성 고려하기, 주석과 해석명기(解釋明記, inscribed interpretation)의 기초 놓기가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는 번역문의 윤리적 귀결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위상어(位相語), 두드러짐, 본문 외 요소들과 그 기능에 대한 문제들 모두가, 번역문을 평가하는 데 자기 역할을 감당한다.

솔직히 주석, 해석, 번역, 동기(動機) 상호간 관계가 명확해질수록, 이러한 작업들 중 어느 것 하나를 다른 것들로부터 독립시켜 수행하기 어렵다. 누군가 번역의 무시무시한 잠재력, 곧 교회가 성경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돕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문화 내와 문화 간 이해 기회를 창출해내는 잠재력을 알게 된다면, 이와 더불어 번역이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이해를 방해하는 데에도 잠재적인 힘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어떤 경우든, 몇 가지 관심사와 논쟁이 수렴되어 이 신약 본문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하는 내 의견이 형성된다. 여러분과 함께 실험할 기회를 주어 감사하다.

이 글은 네 부분으로 나뉜다. 첫 부분에서는 번역 방법과 동기를 생각할 요량으로, 보다 큰 번역학 틀의 윤곽을 그릴 것이다. 둘째 부분에서는 고린도후서의 문학적 특징을 개관하고, 현대 독자가 특별히 자기에게 쓰지 않은 편지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질문할 것이다. 셋째 부분은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후서 일부의 번역을 좌우하는 주제적·주석적 논쟁들에 집중되어 있다. 이 작업은 CEV에 의해 제공된 번역문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넷째 부분에서는 CEV 번역의 속성을 평가하고, 부자연스럽게 익숙해진 본문을 낫설게 하기 위한 번역 전략 예들을 제공한다.

## 2. 다른 목소리 듣기

번역 연구가들과 문화 연구가들은 번역이 문화와 문화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라고 강하게 주장하여 왔다. 좋든 싫든, 번역은 그 자체로 힘을 발휘하는 도구이다. 역사를 통해 행해진, 또한 세계 교회를 통해 현재 행해지고 있는 성경 번역을, 문화를 형성하고 정체성을 창출하는 활동으로, 또한 좋고 나쁜 영향을 끼치는 강력한 수단으로 보는 가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권한을 가진 위치에 선 관리자들은 무엇이 그들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 번역될지 결정할 것이다. 번역의 기초가 되어야 할 권위 있는 원문(原文)이 어떤 것인지, 중계(中繼) 역본이나 모델 역본으로 삼을 만하므로 번역 ‘형태’를 영속시킬 만한 현존 역본이 어떤 것인지, 사용될 언어의 수준과 대상 청중(target

audience)의 수용 범위가 어떠해야 할지 결정할 것이다. 어떤 번역 방법 곧, 이국적으로 할지 토속적으로 할지, 형태를 맞추지 기능을 맞추지, 기초를 형식과 의미 중 어디에 둘 것인지도 정해야, 대상 청중을 권위 있는 원문에 적응시킬지, 아니면 대상 청중의 기호에 맞게 원문을 순화시킬지 결정될 것이다. 성경 번역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준비하며 실행시킬 때, 이러한 모든 질문과 선택이 어떤 것은 의식적으로 어떤 것은 무의식적으로 고려된다. 번역의 동기부여가 고려된다면, 또한 고려될 때, 고상한 선교 일정과 의도가 그 밖의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지만, [앞에] 단순 열거된 번역 특징들이야말로 힘의 문제들을, 그러기에 번역 활동에서의 윤리 문제들까지도 순수하게 드러낸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 방정식(方程式)이 또 다른 말쑥거리가 첨가된다. 곧 상업적 출판사라는 변수이다. 위의 모든 요소들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지만, 동기가 수익과 동일시되기가 일면(一面) 더 쉽다. 비록 종교서적을 발행하는 출판사가 어떤 기독교 교단이나 본질적으로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교단 협의체와 협력하여 성경 번역을 계획한다 해도, 그 출판사는 수용할 만한 상업적 반대급부(反對給付)가 기대되는 경우에만, 그 프로젝트를 계획에서 이행 단계로 진행시킬 것이다. 하지만 다른 일면, 이렇게 상업적인 이유로 추진된 번역 기획이라 할지라도, 위에 언급된 모든 요소들이 여전히 그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 문화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잠재적인 힘은 [번역기획으로] 얻어진 결과물 내에서—이러한 결과물이 궁극적으로 좋은 부실하든—훨씬 더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 글에서 나는, 번역의 힘과 그것의 배경이 되는 주석적 결정들이 개별적으로 드러나는 상황과 관련하여, 위에 개략적으로 배열된 힘 중 한 가지 요소를 시험 삼아 선택하고 싶다. 주석적 담화가 약간 무거워 보일 때, 내 머리에는 항상 어떤 본문의 번역이 (좋은 싫든) 힘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이—번역된 본문으로 잡아끄는 모든 결정들과 동기들과 더불어—있다. 더욱이 나는 (비록 몇 개의 안을 제시하겠지만) 번역 건본들을 되받아치며 교정 안(案)을 가지고 검토하기보다, [번역이 발휘하는] 힘의 활동 정황을 인지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

적어도 1990년대와 베누티(L. Venuti)의 저작 『번역자의 비공개성』(*The Translator's Invisibility*)에는 이국풍의 번역(독자를 저자에게 데려가는, 원문을 편애하는 번역)과 토속화된 번역(저자를 독자에게 데려가는, 대상 청중과 언어를 편애하는 번역)의 상대적 장점에 대한 토의가 다양한 상황에서 표면화되었다. 상업성이 지배하는 서양 시장에 번역되어 나온 비(非)서양 문서들에 대한 조사에서, 또한 [조사를] 통하여 특별히 추진된 탈식민지적 연구에 따르면, [서양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쥐려는 (길들이고 식민지화 하는) 행습들은 서양식 목표와 연관되기에, 타문화적(비서양적인 본래의, 종종 토착적인) 목소리가 서양에 들리고

수용자의 가치관과 가정들이 도전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번역될 것이 촉구된다.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처럼 뚜렷하게 이중적인 번역 방법이, 미묘한 차이를 더 잘 묘사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도록 도전 받아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이다(Eugene Nida)는 양극 모델(형식적 동등성 대[對] 역동적 혹은 기능적 동등성, 형식 기반 대 의미 기반 등)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대상 청중을 돕는 중립화된 번역을 옹호함으로써, 성경 번역에 관한 작금(昨今)의 사고를 ‘이것이 아니면 저것’식의 단순한 용어 속에 진작(振作)시키는 데 많은 역할을 하였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이국화와 토속화—이 연속선상의 맞은편 양끝을 차지하게 될 때, [각각의 선택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논의할 것이다. 그럼, 그 때에는 그들을 양극단으로 나누는 중간 지점들에서 두 가지가 다양하게 혼합되는 것을 허용하게 될 것도 같다. 어쨌든, 이렇게 분명한 이중성의 창시자 겸 보급자는 쉘라이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였다. 1813년 “상이한 번역 방법들에 관하여”라는 강의에서, 그는 번역 방법들을 효과적으로 축소시켜 두 가지로 만들었다. 번역자가 (원문의 문자적 표현을 통해) 독자를 저자에게로 옮기든지, 아니면 방향을 바꿔, (중립화되거나 토속화된 번역을 통하여) 저자가 독자에게로 옮겨졌다. “솔직히 다른 진행 방향은 없다.” 쉘라이어마허에겐, 독자를 저자 쪽으로 옮겨주는 번역이 보다 나은 번역이었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 불어가 우세한 시기에 독일어를 학문적 언어와 세계어로 확립시키려는 더 광범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쉘라이어마허는 번역문이 결코 외국어 본문에 완전히 적합하게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번역자 앞에 다음 두 가지의 선택을 배치했다. [하나는] 토속화로의 수완으로, 수용하는 청중의 문화적 가치관에 본문을 복속시켜, 본문의 이국(異國) 정조(情調)를 감소시키는 방법이다(베누티의 입장에서 이것은 어떤 외래성의 흔적도 가리거나 지워버리는, “유창한” 번역이다. [또 하나는] 이국적이게 하는 수완으로, 이는 수용자 문화의 가치 체계를 뒤엎는다(어떤 의미에서 대상 언어에 저항하는 번역이자, 원문 문화의 가치 체계로 수용하는 청중의 문화적 가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번역이다).

쉘라이어마허는 외국어 본문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번역물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후대 번역 이론가들은 외국 정조를 선호하면서, ‘타문화적’ 표현 방식을 번역 사용의 진가(眞價)로 강조하는 번역 윤리를 발견했다. 또한, 위에서 지적했듯이, 베누티와 많은 탈식민지적 전문가들도, 바로 이와 같은 윤리적 틀 내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데리다(Derrida)의 영향을 받은 베누티는, 번역되면서 해방된 곡필(曲筆, violence)을 덧붙여 강조한다. “번역의 실행 가능성은, 번역이 생산되고 읽히는 문화·사회적 조건들과

번역과의 관계에 의해 확립된다. 이 관계가, 바로 그 번역의 목적과 활동에 내재된 곡필의 증거이다. 즉 번역 언어와 문화 속에 [외국 문헌보다] 먼저 있어, 지배와 가장자리의 체계 속에 상시(常時) 배열되고 가치관·신조·진술(陳述)과 일치하도록 문헌들의 생산·순환·수용을 늘 결정하는 외국 문헌의 재구성이다.” 그러므로 번역은 곡필 행위이다. 번역자에게 번역이란, 자신 앞에 놓인 번역 업무 안에서 곡필의 정도와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특별한 담화에는, 기독교의 성경과 같은 경전 번역에 사용될 만한 함축적 의미—이를테면 번역자에게 노출된 선택들, 번역 행위 중 피할 수 없는 곡필, 번역 가운데 잠재되어서 문화를 바꿀 수도 있고, 유창(流暢, fluency) 전략으로 이국적 가치관을 억압할 수도 있는 힘과 같은 주제들을 포함하여—가 많이 담겨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바퀴 더 논의를 따라감으로써, 이러한 함축들을 더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이다. 뎀(Anthony Pym)은 베누티가 채택했던 슬라이어마허의 이원적 모델의 단순성에 대하여, 문화중재(文化仲裁)라는 번역 평론으로 응수하였다. 거기서 그는 중재자로서의 번역자의 위치와, 이종(異種) 문화 간의 생활 공간과 공동체 내에서의 번역 행위를 강조했다. 그는, 슬라이어마허가 의도적으로 이러한(어떤 문화에도 속하지 않는 혼혈들로 구성된) 공동체들을 배제시켰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뎀의 항의로 적어도 이국화(foreignization)와 토속화(domestication)의 이원성과 같이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구성된 번역 모델들은 복잡해졌다. 이러한 영향으로, 이국화 작업에 대한, 훨씬 더 미묘한 차이를 가진 표현이 베누티로부터 나왔다. 베누티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즉 “영미의 토속화 전통에 반해 이국화하는 번역을 옹호하는 것은, 문화·정치적 의제들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옹호는 그 자체로 하나의 의제이다. 오히려, 수용하는 문화 내의 지배적인 가치관에 저항하는 번역 이론과 실체를 발전시켜, 외국 문헌의 언어적·문화적 차이점을 드러내는 것이 목표이다.” 그는 그의 이론을 펼치기 위해, “과도(過度)한 충실(abusive fidelity)”이라는 루이스(Philip Lewis)의 개념을 이용한다. 우리는 여기, ‘과도한’이라는 용어에, 곡필의 언어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루이스는 번역문과 외국 본문 사이에 오용(誤用)관계가 존재한다고 이해했다. 또한, 외국어와 원안(原案)에 있지만 ‘오용’되거나 ‘침식(侵蝕)’될 수 있는 외국 문헌에 담긴 지배적인 문화적 가치관과 가정들이, 번역될 때 나타날 수 있도록 유창 전략을 반대했다. 번역자는 이 ‘과도한 충실’ 전략으로, 번역어를 음운론적·구문론적·추론적으로 실험하여, 번역문 내에 원문의 다의성과 다중성 혹은 강조 표현에 어울리는 자신의 것들을 번역어로 산출해 내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슬라이어마허는 단순히 번역문에 이질감이 있음을 환기시키고

싶었다. 하지만, 루이스는 실험적 접근으로 다른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이 가능성은 번역자가 번역어의 다양한 모습—단순히 어휘나 구문뿐 아니라, 사용역(使用域)과 방언이나, 스타일이나 담화—를 연구 대상으로 할 때 발견할 수 있다. 베누티는 이 전략을 ‘저항’이라 부르는데, “이는 그 전략이, 오래 동안 영어 역(譯)을 지배해 온 좁은 의미의 유창함을 피하려할 뿐 아니라, 수용하는 문화가 외국 문헌에 자민족 중심적 곡필을 행할 때조차, 그 전략은 수용하는 문화를 대항하기 때문이다”.

결국 베누티가 지적하는 바는, 이국화 전략이 유창함(fluency) 또는 괜찮다면, 가독성(可讀性)을 단순히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유창함이 혁신적인 방법으로 개혁된다. 이국화 번역의 목표는 독서를 좌절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번역투(translationese)’라 불리는, 생기 없고 인위적인 번역을 산출하는 것도 아니다. 그 목표는 “가독성의 새로운 조건들”을 창출하는 것이다. (수용하는 문화를 비난할 수 있는) 이국화 번역 방식으로 유창함을 시도하려면, 번역자는 번역어로 쓸 수 있는 자료들을 사용하되, 청중들이 수용자로서의 자기 문화의 가치관과 언어에 의해 압박받지 않으면서, 외국 문헌을 통해 다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논의에서 소개된 이중적인 것들 중 어떤 것들이, 번역학(翻譯學) 내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번역 전략을 묘사하는 용어인 ‘토착화’나 ‘이국화’는 윤리학과 깊이 연계되어, 외래 본문이나 그 문화를 향한 윤리적 태도와, 번역을 위해 선택된 본문과 번역 전략에 의해 생겨난 윤리적 효과를 생각하게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 독자의 인식 과정과 관계 있는 번역 전략의 추론적 특징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유창함’과 ‘저항’이 사용된다. 다른 용어들이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토착적—이국적 이중성으로 기술되는 논의에 속한, 미묘한 차이를 가진다. ‘낫설게 하기’는 저항성을 고려하는 또 다른 방식이다. 하나의 전략으로, 혹은 번역 기술이나 목표로 [낫설게 하기가] 사용되면, 본문을 다루되 새롭게 읽고 다른 목소리를 들으며, 본문의 남용이나 토착화로 가려져 버린, 본문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다루게 된다. 여러 가지 점에서, 성경 본문을 공동체 내에서 익숙하게 혹은 지나치게 친숙하게 만들었기에, ‘낫설게 하기’가 유용한 개념이 된 것이다. 토착화 번역 곧, 어떤 본문을 대상 청중에게 너무 친숙하거나 토착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번역의 위험성은 이국적인 혹은 원문에 있는 목소리들—그것들은 철저히 자연스런 번역으로 생긴 환영(幻影)에 의해 쓸려가 버린다—이 쉽게 분별될 수 없게 하는 데 있다고, 나라면 주장하겠다.

번역학계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 이러한 논의가, 내가 고린도후서의 문맥 내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질문의 배경이다. [그 질문은] 본질적으로, 낫설게 하기 번역

전략을 고린도후서의 몇 부분에 적용하면 무엇이 산출되겠는가이다. 방금 소개한 번역학에서의 관련 논의가 유용한 렌즈를 제공한다. 베누티의 의제는, (미묘한 차이가 포함된 형태의) 이국화 번역을 통해 번역자의 민족중심적인(즉, 대상 청중 중독적인) 곡필이 번역할 때 제지되거나 감소되거나 회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국적 목소리가 방출되어 번역된 본문이 속한 문화와 결합된다는 것이다. 뫼의 의제는, 사용된 번역 전략이 무엇이든, 문화적 중재와 이해라는 국제적 과업 수행을 돕는데, 번역과 “이중 문화 공간들”에서의 번역의 위치가 가진 잠재력을 보자는 것이다(이 점은 뫼의 저작 중 몇 개에 나타난다; 1995를 보라). 이러한 의제들은 매우 다른 적용과정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몇 가지 점에서 명백하게 일치한다. 경전(經典)—우리의 경우, 서신 장르를 가진, 신약의 한 본문—을 번역하는 연구법에 대한 나 자신의 가정은 몇 가지 논쟁과 맞물려 있다.

성경학 분야의 신·구약 주석에 탈식민지 이론이 적용됨으로써, 몇 가지 흥미로운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에서 종종 제기되는 문제들 가운데에는 다음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식민지 압제자들의 언어로 된 원문 번역에서, 서구적 가치관이 얼마나 고양(高揚)되었는가? 또 토착적이고 비서구적 가치관은 얼마나 억압되었는가? 번역 문제들은 때로 번역 문제들로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번역] 기술자들에게 번역이란, 비록 결과가 같다 해도, 주석 기능이 있다.

사회과학과 성경주석에 관심을 둔 SBL[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학회의 한 소모임이 최근에 펴낸 간행물의 표제가 “사회과학과 성경 번역”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책을 아우르는 선행(先行) 논문 제목이 “이국화 번역”이다. 그 저자는 우리가 위에서 논의한 바로 그 이중성을 독자들에게 밝히기 위해, 슬라이어마허를 간단히 상기시키고, 베누티의 책 『번역자의 비공개성』을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저자는 “독자 멀리 보내기”(외국 문서나 원문으로의 움직임, 그 역[逆] 방향 대신) 번역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슬라이어마허에게서 비롯되고 베누티에 의해 반복된 외국여행 은유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베누티에 의해 시작된 이국화 번역 강령(綱領)은 폭넓게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아니면, 범위를 확대시키지 않는 쪽을 택한 것 같다. 로바우에게 있어 이국화 번역이란, 현대 번역에 의해 종종 모호해진 고대 팔레스타인 사회·문화의 실제 양상을 가장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이국화 접근법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을 번역하면, 트네스튜췌이세스(μνηστειθείσης)라는 헬라어 용어의 본래 의미로 “독자를 되돌리는” 잠재력이 발휘된다. [이 단어는] NRSV에, 현대 서구식 용어인 “약혼 중”(engaged)으로 번역 혹은 오역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계약적으로 꼭 결혼하게 되어 있는”과 같이 더 많은 뜻을 가진다. 로바우가 이국적 번역 방법을 제한적으로 적용해서 이와 같이 해석적인 실례(實例)에 있어서 더 만족스런 결과를

산출하였다는 점을, 나도 인정한다. 하지만, 그의 의도는 베누티의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슬라이어마허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이국화 번역은 사회·문화적 해명(解明)이 필요한 헬라 언어와 문화의 양상(樣相)을 밝히려고 산발적으로 적용된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맞다. 그 기술은 독자를 저자에게로 “멀리” 보낸다. 그러나 그 목적은 오직 본래의 문화적 틀을 재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저자의 본문을 존중받게 하고, 주석하는 데 유용하다. 하지만 (명백히), 수용자 문화에 대한 어떤 비평적인 싸움도 기도(企圖)하지 않는다. 이 점은 로바우의 남은 예들에서도 똑같이 해당된다. 그것들은, 신약성경 헬라어 본문의 언어에서 문화적 “새김”(embeddedness)를 알아차리지 못해서 생긴, 다수의 번역 혹은 주석적 문제들일 뿐이다.

로바우는 자신의 기술을 슬라이어마허식 분열로 규정하고, 번역에 있어서의 한 가지 위험을 설명하기 위해, 베누티가 슬라이어마허에 대해 논의한 것을 사용한다. 그 위험이란 대상 청중의 언어와 문화적 가설들을 지나치게 배려하는 것이다. 그는 번역의 힘이나, 베누티처럼 곡필의 차원에서 번역을 고려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내 자신의 탐구에도 주석적 요소가 있지만, 나는 번역 방법(혹은 의도)의 윤리적 이중성에 관심을 두면서, 도착화라는 주된 목표를 가지고, 번역력(翻譯力) 즉, 문화적 혹은 공동체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번역의 힘과 관계 있는,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면밀히 조사해 보도록 고무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 또한 특별히, (대상 청중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번역하는) 번역을 통해 본문이 도착화됨으로써, 본래 목소리는 소멸되고 새로운 목소리가 제조되었을 경우, 도착화 전략이 적법할 것인가도 조사할 것이다.

### 3. 고린도후서의 문예적 개관

바울의 선교와 연관된 서신(書信)들이 그가 세운 신자(信者) 공동체 안과 또 공동체와 관련된 곳에서 이루어진 사도의 목회·선교적 활동에서 생겨났다는 점은, 신약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이는 원칙이다. 바울의 활동이, 그가 편지를 보낸 교회와 개인들의 역사·문화적 환경과 상관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이 원칙은 서신들을 해석하고 번역하기 위한 매개 변수들을 설정하는 데 효과가 있다. 한편으로, 서신은(적어도 바울과 연관된 것은) 성격상 이따금씩 특별한 경우에 즉 역사와 문화 내의 한 상황과 특별하게 결부되어 엄밀히 말해 바울이 의사소통하기 원하는 어떤 그룹(혹은 그룹들)이나 개인에게 보내지게 된다. 바울서신의 대부분은

선행된 대담이 있음을 추정하게 한다. 이것은 때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같이 매우 단순한 배경 요소가 되기도 하고, 때로 고린도교회의 서신 왕래 중의 고린도후서와 같이 오히려 너무 꼬인 채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본래의 대화 바깥에서 그 서신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엇듣는 사람으로서 접근하게 된다. 그런 사람은 본래의 목소리 중 하나도, 본래 대담의 한 편도 아니다. 우리가 그 위치에 있다. 만일 여러분이 어느 바울서신을 하나의 이메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수신자 그룹 목록에—직접 수신인 범주에도, 참조 범주에도, 심지어 숨은 참조 범주에도—없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 너머의 “독자들”을 생각하지 않았다. 고린도 교회 내에 있거나 그와 관계된 사람들 중, 바울의 대적자라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그가 결국 “사단의 종들”이라 부르는 이들—이 아마도 ‘참조’ 수신자(즉, 바울 자신의 전언이 들려지기를 원하나 직접 말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사람들) 목록에 해당될 것이다. 바울이, 자신이 다닌 다른 교회들에서 그 서한이 추가로 필사되어, 교훈이나 권고 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기대로, 바울이 그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사적·언어학적·문화적 시야를 넘지는 않았다. 이런 관찰들은 어떤 주석적 매개 변수들을 확립하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된다. 하지만 그것들은 또 한 번역 목표를 설정할 때도 결정적이다.

고린도후서라고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는 확실히 뒤에 가장 복잡한 역사·사회·교회적 요소들의 집합을 가진 바울서신이다. 먼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2차적으로 아가야에 있는 더 넓은 독자층에게, 몇 단계에 걸쳐 쓰인 것이 거의 확실하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사역했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주제는, 고린도인의 바울에 대한 오해와 관련된 문제들(바울의 여행 의도, 불충에 대한 호된 처리, 예루살렘을 위한 모금에 고린도 교회를 포함시키려는 욕구,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과 기독교인 사이의 대립) 내(內)와 배경에서 반향 된다. 기독교인의 실재에 대한, 깊고 확고한 신학적 진술은, 전체를 함께 묶어 주는 접착제이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이러한 진술 중 한 요소를 탐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단계에 이르기 전에, 상황의 복잡성과 번역자로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한계와 책임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첫째, 우리가 정경으로 가진 고린도후서에는, [바울] 사도와 교회 사이에 있던, 복잡한 대담과 관계에 대한 몇 개(적어도 두 개, 혹은 더 많은)의 문학적 부분들이 그려져 있다. 둘째, 이미 지적했듯, 우리는 그것[고린도후서]에, 엇듣는 이들로서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떨어진 상태로, 간접적으로 접근한다. 셋째, 우리는 대화 내의 주요한 목소리 중 하나—바울의 편지를 받을 주된 수신자인 고린도 사람들의 목소리—에 대부분

접근할 수 없다. 우리는 오직 혹은 주로 바울의 말을, 그 문제에 대한 바울의 입장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편지에 대해서도, 또한 신약의 다른 서신들에서도 더욱 그렇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린도인들의 아무 말 없는 소리를 바르게 평가할 것인가? 어떻게 그 침묵을 인지할 것인가? 비록 번역문에서 침묵을 위한 여백이 자주 대화에 모호함과 유동성만 더한다 해도, 번역 내에 그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처음 몇 세기의 교회가 바울에게 치우친 서신들만을 기독교 성경의 늘어나는 정경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음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이러한 결정들을 논하지 않는다. 다만 오히려, 그의 서신들 내에 인지되지 않은 침묵이, 댄스 상대 혹은 동무들이 늘 있다는 점을 인정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없었다면, 그 서신은 서신보다는 오히려 수필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편지나 구전 소식을 매우 똑똑한 비취 읽기(거울 읽기, mirror-reading)를 통해 되살리거나 재구성해 보겠다는 반응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각 부분 내에는 수신자들의 그 ‘다른’ 목소리(어떤 반응, 어깨를 으쓱하기, 어떤 모호한 태도, 구석의 어두컴컴함)가 있다. 그 모호함이 어떤 식으로든 기입될 수만 있다면, 번역에 그 목소리가 설명되어야 하고, 그것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내가 주장하는 바는, 현대 독자들을 본래 수신자 자리에 놓으려는 길들이기 전략들은 오직 본래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말살시키고서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를 인도할 중요한 배경 문제로 돌아가자. 모든 해석자들은 고린도후서의 바울과 연계된 주된 쟁점이, 문제를 일으키는 다른 반대세력에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 그룹의 정체나 덜 명확하지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의 비방자로 정의되는 사람들과 이 그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치점이 줄어든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어떤 면에서 유대인이나 유대교화 된 기독교인들이라고 결론 내려도 안전할 것 같다. 꼭 이해해야 할 것은, 바울이 자신의 부재 시에 [고린도에] 있었던 반대 세력이 자신에게 공적으로 퍼부은 비난에 대해, 처음부터 변명조로 대답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본적인 태도와 교회를 섬긴 그의 능력과 권위가 의심받고 있다. 바울은 강압적이라는(1:24; 10:8), 공동체를 세우기보다는 “무너뜨린다”는(10:8; 13:10) 혐의를 받고 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하다는(10:10; 11:6) 비판을 받고 있다. 그들은 그의 약한 혹은 왜소한 육신적 모습(10:1)을, 바울이 멀리서 고약한 편지들을 보내 이것을 보충하는 방법(10:10)과 더불어 깔보았다. 바울의 계획 변경은 의지가 약하거나 영이 우유부단하거나 심지어 변덕스럽다고 간주되었다(1:17-19; 10:2). 그리고 그의 작문은 세속적이고 둔감하다고 판단되었다(1:12-13). 어떻든, 바울의 연약함에 대한 이러한 비난을 중심으로, CEV에 나타나는 분명한 번역 의도를 점검할 것이다.

확실한 다른 특징들도 이 그룹의 바울에 대한 경멸 상황을 요리조리 잘 보여준다. 10-13장에서 바울이 끈덕지고 지속적으로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들이 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들은 분명히 바울을 교회 앞에서 사도됨의 표시들을 드러내는 데 실패한(6:8; 12:12), 예루살렘 사도들과 비교해서 충분히 좋지도 않은(11:5; 12:11), 사도인 체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 바울은 그의 능력과 경험이 비준되는 데 꼭 필요한 추천서도 없었다(3:1-3).

고린도후서의 바울은, 게다가 여러 차원에서, 공동체를 인도하는 그의 권위에 대해 이미 확고하게 굳어진 비난에 대해 대응하려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의견 교환 중, 이를 통해 반대 세력의 윤곽도 최소한 바울의 관점에서는 드러난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바울의 욕설을 탐구할 필요는 없다. 그[욕설]의 대부분은 정경 서신의 후반부에 속한다. 내가 지적하고 싶은 몇 가지를 우리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바울에 대한 비난이 반대세력에 의해 조성되었고, 이제 교회는 바울의 권위와 사도라는 주장에 대해 일반적으로 회의적(懷疑的)이다. 이 비난의 범위는 그의 왜소한 모습에서, 추천서를 (아마 예루살렘으로부터) 받지 못한 데까지 이른다. 무엇보다도 바울의 고난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데, 흠잡는 이들은 이것을 사도에게는 적절하지 않은(그러기에 사도라는 주장을 무효화시키는) 연약의 증거로 본다.

둘째, 바울은 이러한 비난들을 비껴갈 수도, 회피할 수도 없다. 단순한 권위 행사로 그것들이 떨쳐지지도 않을 것이다. 대신, 그는 자신의 고난과 약함에 대해 고린도 사람들을 재교육시켜야 한다. 복음 신학에 따라 이해될 때, 이러한 “자격 박탈”의 표징이 실제로는 하나님 능력의 증거임을 표명해야 한다.

셋째, 그러기에 바울은 그의 독자들을 4-5장의 신학적 정점으로 몰고 간다. 거기에는 복음이 눈부시게 표현되어, 우리의 신학적 유동성의 한계를 얼마간 밀어낸다. 그러나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4-5장의 신학적 명제에 도달하기 전에, 바울이 1장부터 쓰고 있는 수사적 장치이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바울 자신과 사역 내에 있는 기독교인의 실존에 대한 고린도인의 경험을 함축하고 있다. 그 장치는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것의 목표는 시종일관 고린도 사람들로 하여금 일종의 춤을 추게 한다. 바울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우리들”이, 고린도인의 믿음으로 인한 경험의 차원에서 해석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핵심적인 사실이 닳과 같이 [이 해석을] 받쳐준다. 그러나 다른 바울 서신에서는 자신의 고난에 대한 바울 상념에 등급이 없다. 이러한 [수사적] 장치도 빈번하게 출현하지 않는다. 다음 항에서는 먼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수사적 장치에 대해 간단히 살피려 한다. 그 다음, 바울이 논지를 전개하면서 이 장치로 이르

려 하는 복음의 핵심 명제들에 대해 숙고하려 한다.

#### 4. “사망은 우리 안에, 생명은 너희 안에”: 우리의 고난과 너희의 위로, 사도의 자기 비준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고린도후서의 시작 부분은, 다른 바울 서신들에 비해, 처음부터 색다른 무언가가 분명히 진행되고 있다. (갈라디아서를 제외한) 모든 바울 서신은 바울의 감사의 말이 담긴 서론으로 시작한다(형식이 다르고 감사가 약간 지연되기는 하지만,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1:3-4에서 바울은 유대인의 축복형식으로 전환한다. 이 축복은 5-7절에서, 고난과 위로에의 ‘동참’이라는 주제와, ‘어찌할 수 없는 동참’이란 독특하게 표현된 어구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 축복은 8-11절에서도 계속되는데,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에서 겪은 시련을 암시하면서 하나님의 미래적(혹은 계속되는) 구원에 대한 소망을 솔직하게 진술한다. 그리고 이 구원과 바울을 위한 고린도인들의 기도와의 관계를 말한다. 그 축복 부분은 이런 고난과 함께 신적 구원을 경험하는 목적이, 수신자인 고린도인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 표현 증진에 있다는 언급으로 끝난다. 결과적으로, 시작 부분의 감사 문장은 (1) 끝까지 유보 상태이고, (2) 고린도인 기도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며, (3) 전형적인 바울의 감사가 아니라, 고린도인들의 감사를 기술하고 있다. 궁금한 것은, 무엇이 전형적인 바울 서신의 시작 부분(특히 고전 1:4 참고)으로부터 이러한 일탈을 유발시켰는가 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의 이 부분의 변증적 성격과 함께, 바울이 고린도인들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으려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나는 바울의 동기를 1:5-6에 근거하여 기술할 것이다.

[NRS 고후 1:5-6, 11와 GNB 고후 1:5-6, 11은 원문 참조]

바울의 이와 같은 ‘어쩔 수 없는 동참’ 언급과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이와 유사한 언급들이 때로 오역되어 바울이 자신과 공동체 사이에 생긴 불화를 자신이 교회와 얼마나 깊이 연계되었다고 느끼는지 강조함으로써 해결하려고 계획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즉, 이런 식의 ‘허풍’의 목적이 바울이 방문 약속을 취소함으로써 구성원들이 그가 교회를 멀리하고 당혹하게 했다고 느낄 때, 공동체에게 그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과 헌신을 확신시키는 데 있었다고 간주한다. 이것들이 의심할

것도 없이 바울이 이 공동체를 향해 가진 목표였다 해도, 그 “어쩔 수 없는 동참” 문장들은 다른 목표로 치달아 간다. 만일 바울이 비행(非行)에 대해 부정적 언급을 하려했다면, 이런 식의 논법으로 수신자들을 기술된 죄와 연루시키고, 그들을 자신의 논리적 올가미에 걸어, 그들이 범죄에 휩쓸렸다는 점을 확고히 하려 했을 것이다. 비록 바울이 범죄가 아니라 고난 경험, 약함, 신적구원, 감사를 기술하고 있지만, 여기서 목표는 여전히 ‘연루됨’에 있다. 바울이 오해(혹은 반대자의 비난) 곧,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다는 것과 그의 사도적 권위가 무효임을 바울의 고난이 증명한다는 오해에 답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명심하라.

논리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할 것이다.

- (1) 그리스도의 고난을 사도적으로 경험할 때(즉, 그리스도가 죽으신 메시아적 고난을 사도가 함께 체험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경험한다.
- (2) 나의 고난은 동시에 너희 위로와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된다.
- (3) 우리가 신적 위로를 경험하는 것도 또한, 너희 고린도인들과(너희가 믿음을 위해 동일한 고난을 감내할 때 경험하게 될) 너희 위로를 위한 것이다.
- (4) 결국, 바울 사역과 연관된 하나님의 축복, 위로, 구원 때문에 드러지는, (궁극적 목표인) 하나님에 대한 감사조차, 고린도인들로부터 나올 것이다.

요약하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사역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했던 편지 서두의 변증에서, 고린도인들을 바로 연루시키고 있다. 고린도인들이 이 점을 즉시 비판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 바울의 해석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일 것이다. 둘째 것에 대한 대답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여기서는 무관하다. 바울의 근본적인 논거가 나오려 한다. 그러나 여기서 ‘고린도인 연루’ 논거가, 추가적인 유사 표현인 ‘어쩔 수 없는 동참’을 통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자.

① 1:14에서, 유사한 “어쩔 수 없는 동참” 견해가 종말론적 자랑 언급에서 나타난다. “여러분이 이미 우리를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바와 같이, 주 예수의 날에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이듯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입니다”(NRS).

바울의 사도적 사역에서, 종말론적 상호 의존 유익이 증대된다. 바울은 과거시제를 사용하여(“여러분이 이미 우리를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바와 같이”), 고린도인들이 이미 이러한 동참에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② 바울 사역에 고린도인들이 “연루되어 있음”이, 1:24에 압축되어 다시 기술된다.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을 주관하고 있음을 던지시 비추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가 돌아가겠다고 말하고서는 고린도에 돌아가지 않기로 한 이유를 설명하는 문맥에서, 동기(動機)에 대한 언급을 되풀이한다. 그는 “고린도인들을 위하여” 결정했다.

③ 이 “어쩔 수 없는 동참” 주제는 2:1-5에도 스며 있다.

[NRS 고후 2:1-5는 원문 참고]

여기서 바울은 징계 수행으로 야기된 “고통”에 교회를 포함시킨다. 바울이 느낀 것을 전 교회도 느꼈다(5절). 그 교회가 조사 중인 바로 그 사도적 사역에 연루되어 있는 것이다. 선행 단락과 ‘어쩔 수 없는 동참’ 전략이 없었다면, 이 단락은 상호 의존과 나눔, 긴밀한 관계성 강조에 대한 단순한 언급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친밀함이 아니라, 반발의 예이고, 바울의 ‘연루시키기’ 전략은 고린도인들을 그의 뜻으로 잡기 위해 설계되었다.

④ 고린도교회를 위한 바울 편에서의 상호 호혜적 행동이 (1:6의 바울의 고난과 같이) 2:10에도 나타난다. “여러분이 용서한 사람이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용서하면, 내가 용서하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 편에서 한 ‘용서’는 바울 사역에의 동참을 암시할 뿐 아니라, 바울 자신의 행동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서”였다.

⑤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고린도인들의 독특한 관련이, “추천서”에 관한 논의 문맥에서 다시 보인다. “여러분 자신이 우리 마음에 쓰인, 모두에게 알려지고 읽혀진 우리의 편지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요점은, 바울의 정당성은 고린도의 신자들의 삶에 일어난 것에 의해 증명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바울 사역에 포함되어 있다.

⑥ 사도가 고린도인들에게 납득시키려는 바울의 사역과 바울과의 관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문장이 4:12에 있다. “그러므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지만,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한다].”

요약하면 여기서 바울은, 그의 고난이 생명을 낳았다고 교회에게 말할 수 있다. 예수 죽음의 구체화로서의 바울의 고난(그리스도의 고난에의 참여)이, 믿게 된 고린도인들의 구원 안에서 일하여 (예수의 부활을 본 단) 생명을 생산했다. (5:13도 보라.)

바울의 사도적 사역 안에 느리지만 확실하게 고린도인을 포함시키는 바울 주장의 논리는, 첫 세 장에 있는 몇 개의 변증적 설명 문맥에 전개되었다. 그 논거의 주된 적용은, 명시된 복음 명제 안에서 바울 사역을 설명하며, 4:5에 나타난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명백히 선포하는 복음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와 저항하는 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말한다. 반대자들의 주장이 배경에 있기에, 자랑 게임에 붙잡히기를 주저한다(참고. 5:12). 그러나 그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4:1과 같이 담대히 주장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로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4:5에서 바울은 자신과 복음의 핵심을 솔직히 구별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 자신은 예수를 위한 여러분의 종들로 [전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은 둘째 문장이다. 동사 ‘전하다’(κηρύσσειν)는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한다. 첫째,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를”에는 논박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두 번째, “그리고 우리 자신을 예수를 위한 여러분의 종들로”는 문제가 된다. 많은 주석가들은 여기서 바울이 사도 역할을 복음의 일부(一部)로 포함시킨 것을 인정하기 꺼린다. 그러나 바울이 가리키는 것은 그의 역할 그 자체가 아니라, (동참을 함축하는 문장들에 암시된 바와 같이) 고린도인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위한 그의 행실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형(十字架形, cruciform)”의 행실이, 여러분이 괜찮다면, 인간의 복음 구현이다. 곧,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바울 사역 안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이 고린도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건네준 방법에 분명하다고 바울은 주장한다.

나는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 몇 번의 도약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논리의 윤곽을 그려보겠다. 이러한 사고(思考)의 기초는 5장인데, 이 장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중심적 원칙으로 발전된다. 5:18-19에 있는 명백한 주장과, 15, 16, 17, 21절에 있는 “히나(ἵνα)”와 “호스테(ὥστε)”절(節)이 중요한 열쇠가 되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범위와 의미에 대해 바울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결정

하게 한다.

(1) 하나님의 화목 행위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 그리고 이를 통하여 있었다. 또한 5:20에 따르면, 똑같이 화해시키는 활동이 바울 사역에 명시되었다. 즉, 사역 활동의 모양과 질이, 근간을 이루는 사건들에 의해 정의된다. 화목을 위한 하나님의 호소가 바울 사역을 통해 이뤄진다. 더욱이, 하나님에 의한 이 사역의 수여(18절반절의 “우리”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바울 팀 혹은 모든 믿는 자에게)가 하나님의 화목 활동의 일부이다. (2) 화목의 범위는 우주적이다(5:19). 그래서 엘리트주의자의 구원 이해를 배제한다. 이와 관계하여, 14절하반의 “모든 사람”은 강조용법으로, 결론적으로 14절하반의 “그러므로 모든 사람”으로 확장된다. 결과적으로 세계적 규모의 존재론적 변환이 일어났다. 그 한 사람의 죽음은, 모두가 죽었음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종말론적 목적이 개인적 이득(혹은 믿는 이 각자를 위한 천국행 개별 티켓)에 있지 않음이 5:15에 함축되어 있다. 오히려 그것은 어떤 선교학적, 사명 목적이다. “그리하여 산 자들로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죽고 부활하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바울의 논리는 이런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자신에게 대하여 죽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4:5의 “예수를 위하여”를 보라)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취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 때, 나타난다.

예수 죽음과 부활 경험의 궁극적 목표는 전 세계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있다(19절상). 그러나 예수 안의 이 사건이 표현될 때, 그리고 그 다음,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것을 다시 표현할 때, 화목의 말씀은 자기 역할을 수행한다.

어쨌든, 4:5에, 예수 죽음과 부활 위에 단언된 바울의 논리와, 예수 죽음(자기에게 대하여 죽는 것)과 생명(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과 연합된 바울이, 복음의 간명한 명제에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에게서 드러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이 결합되어 있다. 바울의 전략은 1장에서 맨 처음 ‘어찌할 수 없는 동참’ 선언과 함께 시작하여, 다른 문맥에서 유사하게 형성되고 주제화된 선언들로 발전되었는데, 이 전략에서 고린도교회가 이러한 신적 화목 사명 안에 있다는 함의를 읽을 수 있다. 그들이 이것을 믿었는지, 바울이 그의 논지를 관찰시켜 고린도 사람으로 하여금 연합함을 하나님의 능력 표현의 한 단계로 생각하도록 했는지 완전히 알려져 있지는 않다. 만일 고린도후서의 남은 부분이 추가된 바울 서신으로서, 그의 부재 중 제기된 그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일련의 계속된 답변이라면, 우리는 그 과정이 바울이 5장 끝부분에서 소망했던 것보다 더 길어졌으리라 예측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어찌할 수 없는 동참 언어가 단순히 교회에게 제발 그가 한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었음

을 이해해 달라는 식의, 바울 편에서의 청원이나 구걸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바울은 처음에는 가려진 형태로, 그러나 결국 담대한 신학적 고저(高低)를 가지고 주장한다. 고린도인이 하나님을(성령의 은사와,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독인 공동체 훈련의 상호 양보 가운데, 치유 가운데,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경험한 것은 ‘연약한 중에’ 이루어진 바울 사역의 결과이다. 그들이 가진 기독인 ‘DNA’는 바울의 것이다. 그들의 대의명분(大義名分)은 바울의 복음이다. 바울의 사도권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그의 대적자들이 오해하고 헐뜯는, 그의 연약과 고난에서, 하나님은 화목 사역을 그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 안에서 드러내시고 실행하셨다.

이것이 바울이 걸터앉은 논거이다. 그리고 어떤 번역들은 현대 독자에게 이러한 논거에 접근하게 해준다. 그 목소리가 들리게 놔둔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다.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나는 마침내 나의 번역 요점에 도달하려 한다.

## 5. 다른 목소리를 듣게 하는 번역

### 5.1. 순화된 번역 평가

서두 부분에서 분명해졌을 나의 생각처럼, 나의 관심사는 번역된 본문을 순화시키려는—그것을 대상 청중에게 자연스럽게 만들고, 대상 청중의 문학 문맥에 속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명확하게 타당한—번역에 있다. 성경 번역의 경우, 종종 강조된 동기는 복음적이다. 그러나 고려해야 할 윤리적 논점들이 있다. 특히, 좋은 싫든 번역이 문화 정체성에 영향을 줄 만한 힘 있는 활동 중에 적절히 배치되어 있다면, [더욱 그렇다.] 어떤 본문의 저자가 들리게 하고 싶은 목소리들이, 본문의 본래 내용에 속할 뿐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조성하는 목소리들이 있다. 그런데 그런 목소리들을 묵살하는 것은 어느 정도 혹은 다른 면에서 하나의 곡필행위이다. 좋은 의도이든 아니든, 고린도후서와 같은 고대 문서조차 그런 식으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해 보아야 한다. 내가 간단히 (그리고 불완전하게) 보이려 했던 것처럼, 순화된 번역은 나쁘거나 의심스러운 주석을 포함할 뿐 아니라, 고대 문서에 새겨진 옛 대담 내 목소리들을 왜곡시키기도 한다.

이제는 순화시키기와 연관된, 한계와 남용을 생각하게 하는 번역 평가 제시가 남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우리 앞에 놓인 본문과 충돌하고 있는 번역 방법의 몇 가정들을 열거해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고린도후서는 21세기 사람

들에게 쓰인 편지가 아니다. 우리는 대화의 한 쪽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영원히 잊히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서신 장르, 특히 바울에 의해 사용된 서신 양식의 성격이다. 그러므로 나는 종종 “궁극적인 수용자들이 원래 수용자들의 것과 유사한 반응을 보이도록” 길들이기/이식하기 프로그램과 연관된, 이상적인 목표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바울은 우리를 마음에 두고 쓰지 않았다. 더 나아가, 우리가 번역할 때 의심할 여지없이 보편적인 신학적·윤리적 명제들의 경우나, 역사적이거나 신화적 서사와 관련된 경우에, 본래 반응에 근접한 것을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고린도의 믿는 자들의 입장에 서서, 바울이 그들과 나누는 대화에서 그들 역할을 하고 있는 체할 수는 없다. 듣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다.

고린도후서 1-4장에 전개되는 종류의 담화의 경우, 특히 그렇다. 바울은 만일 성공한다면 고린도인의 이해를 교정할 수 있는 설명을 하느라 여념이 없다. 비록 다른 사람들(예. 아가야의 믿는 자들, 또한 언젠가는 다른 바울의 교회들)이 초청 받아 들을 수도 있지만, 그는 편지를 매개로 특별히 고린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다. 우리가 특별히 듣도록 초청받은 적은 없다. 그러나 교회가 바울 문서들을 정경으로 채택함으로써—비록 우리가 그 담화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져 있지만—이것을 가능하게 했다.

5.1.1. 길들이기[번역]의 위험성에 대해 느끼는 바를 예증하기 위해, 나는 CEV를 사용하려 한다. 첫째는, 총체적인 관측이다. 고린도후서의 본래 모습에 대해 학자들이 어떤 결론에 이르든, 문학의 발달사가 복잡한 것은 분명하다. 또한 그 결과 구조도 불확실하다. 하지만 이런 번역의 경우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불확실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불확실한 것들이 참을성이 없는 현대 독자들을 좌절시키거나 심지어 기분을 상하게 하여, 즉시 연관성에 대해 의심을 품게 하고, 그 결과 현대 독자로 하여금 더 이상 그 본문에 매이지 않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6:14-7:1 단락은 전형적 예를 제공한다. 종종 이 부분은 고린도후서가 정경화 되는 어느 한 시점에서, 바울의 고린도 서한집의 다른 조각들에 추가된, 하나의 분리된 편지로 간주된다. 우리가 이 단락과 정경화 된 서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든, 이 단락이 일종의 삽입이라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6:13에서 바울은 독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열라”고 촉구하고 이 생각을 7:2에서 다시 시작함으로써, 통일된 중재 자료가 삽입되었음을 시사한다. CEV는 결코 그 [길들이기] 전략을 사용한 유일한 번역이 아니다. 그러나 이 중재 단락 전후에 부제(副題)를 삽입함으로써, 이러한 본문의 이음새들을 감추고, 자료 삽입에 의해 야기된 본문 내의 틈을 무마시키며, 현대 독자들에게 [본문]이 잘 흘러가고 통일성이 있다는 환

상을 심어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편지가 공연되거나 읽혀질 때, 고린도인의 목소리가 들리게 할 만한 순간들인(들릴 만한 당혹해하거나 동의하는 소리들 혹은 보일 정도의 으쓱거림이나 몸짓), 웅변적 휴식, 공연의 행(行)중 휴지(休止), 침묵 시간이었음에 틀림없는 것들도 제거해 버린다. 그러나 CEV가 본문의 틈새들을 메워버린 후에는, 읽는 사람이 그러한 일시중지에 얽혀 생각하도록 자극받지 않을 수 있다.

5.1.2. 이런 도로고치기 식 길들이기[번역]의 의도는 [번역] 대상어가 유창하다는 환상을 번역된 본문에 주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번역에서, 이 점은 방금 설명한 경우에서 매우 명확해 보인다. 그러나 이 점은 덜 명확하지만 다른 식으로도 나타난다. 바울의 언어는 화려하게 짜져있다. 복잡하고 신중하게 측량되어 있다. 그래서 설명하고 개념을 재정립하려는 그의 목표들을 이룰 것 같다. 우리가 사용하는 학문적 헬라어 본문 구두점의 목표는 바울의 박자와 리듬을 “가장 잘 추측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중 낭독자/연주자가 어느 곳에서 잠시 멈추어 효과나 의사소통적 강조를 주어야 하는지, 그러한 위치들을 알게 해준다. 그러나 CEV는 이 문제에 있어서 종종 독특한 흐름을 취한다. 이는 때때로 영어가 헬라어와 다른 필요 조건들을 가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래서 어떤 자연스러움을 얻으려면, 구문 재배치, 첨가된 구두점 조정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단순한 구두점이 아니라, 헬라어 본문에 있는 (역설, 아이러니, 은유, 워드플레이와 같은) 미묘한 차이들은, 개념상 쉬거나 반응을 보이거나 목상하도록 이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본문의 독자나 청취자를 파토스나 감정의 심오한 경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 길들이기 번역 전략들은 풍부한 원래 조직을 종종 밋밋하게 만들 수 있다. 그 결과 파토스와 감정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잠재력을 거의 제거해버린다. 그래서 (좋은 포도주에 있는 것과 같은) 복잡함과 풍부함 대신, 가장 낮고 평범한 표준 본문만 남게 되어 주의를 끄는 데 실패한다.

CEV가 이런 울무에 걸린다. 영어가 제1언어가 아닌 독자들을 겨냥하여, 구어체 위상어를 선택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방법으로, 문장구조 단순화하기, 원문의 헬라어 문장들을 짧게 하기, 현행 미국 스타일 정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단어 재배열하기, 어떤 경우 과장된 감정 표현으로 상황을 지나치게 피상적이고 단순하게(예. 어떤 극단적인 것이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1:5에 “무시무시한”과 “놀라운”을 병치시킨 것) 설명하도록 (나의 사고방식으로는) 이끄는 사전적 의미 선택하기가 있다. 문장을 짧게 할 때, 문장 수는 당연히 늘어난다. 이로써, 추가된 주어와 목적어로 인해 대명사 반복이 필요해진다.

비록 바울 서신의 헬라어가 널리 **코이네** 헬라어라 불리는 것에 속하지만,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층의 위상어가 있다(누가와 바울, 히브리서와 베드로전서를 비교해보라). 줄잡아 말해도, 이처럼 풍부하게 짜지고 복잡한 서신이(바울은 10:10에서 그의 대적들의 주장 곧, “그의 편지들은 무겁고 힘이 있다”라는 주장을 언급한다), 그렇게나 사용역이 낮아지고 시시해진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5.1.3. CEV의 1:3-7의 번역에서, 문장의 증가는 곧 분명해진다. NA27[네슬-알란트 27판]에는 본문 문장을 넷으로 나누도록 구두점이 찍혀 있다. 그러나 CEV는 이것을 배가하여 여덟 문장이 되게 한다. GNV은 덜 급진적 등가 처리 기능 효과를 보이려고, 본문을 다섯 문장으로 만든다. CEV의 경우, 문장을 짧게 함으로써, 대명사 추가(명사화)와 재배치(목적어에서 주어로, 혹은 문장 초두로의 대명사 재배치)가 필요해졌다. 이런 식의 리모델링은 길들이기 목적과, 주석적 결정에 당연히 근거를 둔 신학적 가정들에 의해서도 성립되었다.

예를 들어, CEV의 1:5 번역을 관찰하면, 자금 인용한 길들이기 중 몇 가지를 함께 볼 수 있다. 첫째, 그리 해롭지 않은 이동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 1:5의 헬라어는 “~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다”(καθώς … οὕτως …)의 문장으로 균형이 잘 맞춰져 있다. 주동사 “그득하다”(περισσεύειν)가 반복됨으로써, ⊖ “그리스도 고난”의 풍성과 ⊕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위로”가 전면 배치된다. 이러한 것들의 수령인을 가리키는 단어로, 처음에는 전치사로 동사와 연결된 일인칭 복수 목적격 대명사 “우리들”(ἡμᾶς; 바울 혹은 바울과 그의 팀을 지칭함)이, 두 번째는 소유격(ἡμῶν)이 사용된다.

CEV는 이것들을 어떻게 재구성하는가? 그 대명사를 주어부로(“우리가”) 이동함으로써, CEV는 초점을 사람들에게 이동시킨다. 반복된 동사로 표현된, 이것들의 ‘양’을 나타내는 ‘풍부함’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 그것들의 특질로 묘사된 공통 경험에 대한 것이 된다(“우리는 무시무시한 고난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놀라운 위로를 공유하고 있다”). CEV는 다른 전경(全景)과 다른 강조를 선택하고, 그 상황에 대한 바울의 기술을 축소시키며, 미국의 유물주의적인 “마음이 가볍고 항상 낙관적인” 기분에 훨씬 더 바람직하도록 상당히 밝은 분위기를 만든다. 본문이 “무시무시한”과 “놀라운”의 첨가로 새롭게 순응됨으로써, 피상적 의미로 너무 깊이 빠져들게 되는데, 이 피상적 의미들은 공적 관계를 맺는 전형적인 사람들이나, (세계의 남은 부분에서는 실상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당연시되는 삶의 안락으로 실제적 극단에 이미 익숙해진) 어떤 문화를 위해 삶의 극단을 너무 쉽게 써먹는 광고 내에서 종종 난처함을 의미한다. CEV 번역은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에 관한 것이 되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두드러지

게 된 후에, 나머지는 “무시무시한”이나 “놀라운” 것이 된다. 하지만 바울의 번역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신적 위로”와 인간이 이것들과 어떻게 관계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길들여진 결과, 접근 가능하고 관계된다는 환상을 현대 독자에게 거리낌 없이 주게 된다. 21세기 독자가 바울이 쓴 글의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경이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를 위해 쓰였다고 가정하는 근본 주의자의 이기적 욕구는 충족될지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이 마음에 두지 않았던 방식으로 본문을 다시 써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

짜임새가 단조로워지고, 바울이 써 넣은 변증적 (때때로 거의 반대하는) 음색은 지워진다. 마치 바울이 그들이 어려움을 직면하도록 용기를 북돋으려고 단순히 고양(高揚)하는 설교를 하는 것처럼 들리도록, 본문이 개조된다. 하지만 실제 목적은, 헬라이어 원문이나 덜 순화된 번역본들(GNV, NRS)에 훨씬 더 분명하듯, 바울의 고난을 기술하고 해석하며, (위에서 논증된 것처럼) 바울에 의해 구상화(具象化)된 믿음-경험(죽음과 부활) 구조 내에 고린도인들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CEV의 순화시키기 전략으로, 언어의 단순성과 접근성에 대한 환상은 획득될지 모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실제 메시지는 말살된다.

#### 5.1.4. 순화시키기 효과에 대한 또 다른 예

바울의 역설적 시작 명제인 1:5-6에 있는 ‘어찌할 수 없는 동참’ 부분도 목적 선언(“만일 우리가 고난 받는다면 ... 그것은 여러분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에서 중화된 소망 선언(“우리는 여러분이 위로받고 구원받을 것을 소망하며 고난 받습니다”; CEV)으로 과감하게 변형된 면에서 유사하다. 실제로 헬라이어 본문을 읽어보면, “소망”이나 심지어 답이 정해지지 않은 불확실성과 같은 것은 바울의 생각에서 가장 동떨어져 있다. 그런데 CEV는 그 대신 고난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여, 마치 그 해석으로 바울이 용기를 얻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바울의 수사적 목표는 다르다.

5.1.5. 똑같이 단조롭게 되는 일이 1:14에도 분명히 있다. 그 절에서 바울의 함축적 명제는 종말의 때를 향하고 있다. 바울이 담대히 역설한다. 그 날에 “우리는 너희의 자랑(의 이유)이고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다.” CEV는 이 날을 상호 감탄의 날로 개념을 바꾼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문에서 수사적 치아들을 뽑아버린다. “그 때, 우리 주 예수께서 돌아오시면, 우리가 너희를 자랑하듯, 너희도 우리를 자랑할 수 있다.” 결국, 바울의 명제에 있는 ‘어찌할 수 없는 동참’ 의도는 붙잡는 데 실패한다.

5.1.6. 이런 순화 과정의 예들은 번식하듯 늘어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일례를 4:5의 핵심 명제에서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 이는 다루기 힘든 명제이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을 그가 선포하는 복음의 일부분으로서 그의 사역(혹은 그가 고린도인들과 함께 있을 때, 행동으로 구체화된 사역)에 포함시키는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종이 된 우리 자신을 전합니다.” 헬라이어 본문에는 다음의 논리가 담겨 있다.

Ἰησοῦν Χριστὸν κύριον  
(우리가) κηρύσσομεν δὲ  
ἑαυτοὺς δούλους ὑμῶν διὰ Ἰησοῦν.

이 놀라운 본문이, CEV에는 다음과 같이 맥이 빠져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관해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우리를 여러분의 종들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재구성된 표현이 가진 논리를 비교해보라.

우리는 우리 자신에 관해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우리를 여러분의 종들로 보내셨습니다.

아마도 주석적 이유 때문이겠지만, CEV는 원문을 짧은 세 문장으로 나누면서, 선포(이 문장의 유일한 동사) 행동에 대한 강조를 감소시킨다. CEV가 어떤 것을 단순 명료한 형태로 전달하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바울의 의도하는 바를 표현하는 데는 실패했다.

5.1.7. 이제 나는 이 비판을 요약해야 한다. 첫째, 4:5를 볼 때 제안한 것처럼, CEV의 순화 전략으로 중요 본문, 곧 사실 상 앞선 장들에 있는 ‘어찌할 수 없는 동참’ 주제를 풀어주는 열쇠가 되는 본문을 오독(誤讀)하게 되었다. 이 주제야말로, 바울이 자신의 고난에 대한 고린도인의 평가를 재조정하는 데 중심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둘째, 추론적 복잡성을 (문장 개수 줄이기, 수동태를 피하려고 대명사를 목적어에서 주어로 바꾸기로 수행된) 감소시키는 위상어와 과격함 프로그램이 [CEV를 위해] 선택됨으로써, 본래 잘 짜이고 고귀한 색조가 담긴 언어가 무미건조하게 되었다. 셋째, 과도하게 극적인 언어 사용의 예들로 인해, 바울은 미국의 어느 공공기관 요원이 된다. 그렇게 감정을 토로하는 극적 언어가 미국 영

어에서 널리 사용된다 해도, 그와 같은 단어의 남용으로 [바울의 글에서] 그런 언어들 은 실질적으로 의미 없게 된다.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본문이 현대 북아메리카 십대 수준의 영어 정도라는 환영을 주게 된다.

본문을 읽은 후에 “이것이 나에게 쓰였다”라는 느낌을 현대 독자에게 주는 것이 목표이다. 주관적이든 아니든, 1:3-7의 CEV 번역을 읽을 때, 내가 느끼는 것은, 담화 자체가 평이하게 일반화될 정도로 본문이 너무나 순화되어, 독자가 자격도 없으면서 너무나 쉽게 대화 내의 한 역할을 ‘맡도록’ 초청받는다. 순화시키기로 모든 공백은 메워지고, 모든 험은 제거된다. 또한 고대 이국(異國) 문서는 난문(難文)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이상하리만큼 익숙해지고 과도하게 완만해진다. (글 숨씨와 ‘어찌할 수 없는 동참’ 문장들을 통해)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배치한 퍼즐들은, CEV의 익숙하게 하는 기술로 해체된다. 또한 중요한 목소리 혹은 목소리들은 지워진다. 그 중 하나는 바울 자신이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길들이기 번역은 어떤 주석적 실수를 야기하거나, 실수에 근거한다. 바울의 목소리는 감춰진다. 남은 다른 것은 내가 전에 언급한, 침묵하는 목소리이다. 쉽도, 멈춤도, 퍼즐들도 없어지면서(본문이 크림처럼 부드러워질 때), 반항도하고 반응도 보이는 최초 청중의 생각도 말살된다. 그러나 바울의 목소리를 충분히 평가하고 이해한다면, 드라마와 고린도인의 혼돈 상황과, 궁극적으로는 다른 목소리가 형성하는 신학적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 결정적인 것은 그 다른(심지어 침묵하는) 목소리의 존재이다. 비록 읽을 만한 본문을 산출한다 해도, 이런 식의 번역은 의미를 전달하는 면에서 성공적이지 않다. 또한 필시, 번역 윤리적 원칙들을 깨뜨리는 번역이다. 그래서 나는 본문의 문제를 다시 문제 삼고, 본문을 낮설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자는 대답을 하고 싶다. 그럼으로써, 현대독자들은 옛들은 사람들로써의 바른 위치를 점할 수도, 침묵하는 고린도의 다른 목소리들이 ‘들리도록’ 여지를 둘 수도 있다.

## 5.2. 낮설게 하기 전략들

마침내 나는, 이국적 목소리가 들리도록 몇 가지 낮설게 하기 조치를 제의하기 위해, 잠잠케 된 중요 주제의 근거가 되는 4:5의 주석적 조정부터 시작할 것이다. 그 다음, 1:3-7의 목소리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몇 전략들을 제안하려 한다.

5.2.1. 자신의 고난에 대한 바울의 논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복음에 관한 신학적 명제는 4:5에 의해 형성된다. 헬라어 본문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전하지(κηρύσσομεν) 않고, 오히려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종이 된 우리 자신을.

첫째 절에 나타나는 주동사는 “그러나”(ἀλλά)로 이어지므로 계속 영향을 끼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 둘 다 병렬 목적어로 취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전한다)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종이 된 우리 자신을.

바울이 선포될 대상으로 “우리 자신”을 어떤 의미에서 얼마나 포함시키려 했는지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다면, 이 명제 안에는 상당히 수준 있는 모호함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 모호함에 대한 불만 때문에, 위에서 살펴본 대로, CEV에는 하나의 문장을 셋으로 나누고 마지막 절에 의미심장한 해석을 새겨 넣음으로써, 그것이 해소되어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관해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우리를 여러분의 종들로 보내셨습니다.

이는 지나친 해석이다. 아마도 고린도후서에 대해 우리가 고려한 것 중 어느 것보다도 꼭필로서의 번역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예증이다. 이 본문은 순화 과정을 통해, 본문 자체에 그리 뚜렷하지도 않고 문맥에 의해 특별히 제시되지도 않은 해석에 순응하게 되었다. 대체 번역을 가능케 하는, 원문 고유의 모호함이 지나친 해석과 길들이기에 의해 제거된다. 이국화 해법이란 ‘독자의’ 선택이 정해지지 않은 채로 남겨진 번역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5.2.2. 이제 1:3-7로 돌아가면, 논증했듯, CEV에는 본래의 짜임새가 단조로워져 담화의 목소리들을 혼란케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청중에 대한 접근성과 관계성을 과도하게 강조하기 위해 사용했을 길들이기 전략으로 침묵부분을 불법적으로 채운다. 이국적 대화 분위기를 자아내는 목소리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나라면 참가자의 대명사에 어떤 두드러짐을 첨가하여 낫설게 하기를 시도할 것이다.

예를 들어, 바울이 일인칭 복수 대명사(“우리”/“우리들”)를 사용할 때 종종 “나를”을 의미한다는 그럴듯한 가정에 근거하여(4:5에 주의하라. 거기서 바울은 스스로 지시 대상을 상호대명사 “우리 자신”으로 확대한다), 수사적 “우리”를 “나”로 변환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그 다음에, 대명사 “나”의 상대방을 “여러분, 고린도인들”로 번역함으로써, 복수 “여러분”의 별남을 강조하려 한다. 예를 들어, CEV의 1:6 번역과, 낮설게 하여 이국화된 것을 비교하라.

CEV:

우리는 여러분이 위로받고 구원받을 것이란 소망으로 고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로받기 때문에, 여러분도 위로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처럼 고난 받으며 끈기 있게 참을 때.

낮설게 된 번역:

만일 내가 괴로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고린도인들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만일 내가 위로받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위로를 위한 것입니다. 그 위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내가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급한 첫 시도이다. 하지만, CEV의 길들이기 접근과 비교해보면, 내가 얼마나 초점을 옮기려 하는지 여러분은 볼 수 있다. (1)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고유의 참가자들이나 목소리들에 대한 초점을 또렷하게 할 작정이다. “여러분 고린도인들”이라고 처음 한번만 정식으로 지칭하면, 필요한 또렷함은 창출된다. (2) 이런 번역으로, 현대 독자들 편에서의 부적절한 공상은 허락되지 않고 저지된다. 현대 독자는 대화 참여를 ‘미룬다’. 이런 번역은, 복수 대명사들의 함축을 통해 진정한 일반 출입구가 어느 곳(즉, “우리의”, “우리는”, “우리들”)이 모든 신자들을 가리키는 곳인지 분명해지는 데 도움이 된다. (3) 또한, 이렇게 대명사를 처리할 때, 한편인 바울과, 또 다른 편인 고린도인들 사이의 대조가 뚜렷해진다.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져서, ‘어찌할 수 없는 동참’ 명제가 등장할 때 더욱 놀라게 된다.

5.2.3. 1:6에 방금 제안한 처리를 사용할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동참’이라 부르는 주제를 강조하는 번역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CEV의 1:6 번역에는 바울의 고난/위로와 고린도인의 고난/위로에 관한 명제에서 모든 인과관계가 제거되어 있다. 그러나 내 주석이 옳다면, 또한 이 주제적 명제가 4:5과 적절히 연결되어 있

다면, 인과관계는 실제로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 인과관계는 4:5 면에서도 해명될 것이다. (외국 문서와 현대 독자를 섬길 때) 내 관심사는 어쨌든 1:6의 주제적 가치가 놀랍다는 것과, 4:5로 연결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나는 추가적인, 더 급진적인, 1:6의 이국화 번역을 제안한다. 이는 의외의 인과 관계를 강조하고, 독자가 이후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하려 함이다.

**나는 정확히 여러분 고린도인들의** 위로와 구원을 위해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위로를 위해 위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여러분의 위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내가**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단호함과 인과관계로 독자가 어찌면 당혹감과 놀람으로 반응할 수도, 심지어 바울이 제안하는 공식을 반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목소리인, 경청하는 고린도인들의 침묵이 ‘들리도록’, 개념적 공간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다. 이런 것을 CEV가 한대로 평탄하게 만든다면, 추론적·개념적 도로에 있는 모든 턱이 제거되는 것이다. 원문의 문제를 번역문에서 문제되게 하면, 독자는 반대하거나 의아해하는 침묵을 감수하게 되어 있다.

5.2.4. 마지막으로, 전경화(前景化)나 두드러짐에 대한 분명한 조정(調整)이 길들이기 번역에 이루어짐으로써, 이국적 강조가 확실히 복구될 수 있다. 우선, 과격하게 순화된 CEV 1:5로 돌아가면, 이는 그리스도 고난에 걸쳐있는 인간과 그가 인간에게 주시는 신적 위로를 강조하기 위해 이국적 여지를 복원하는 것을, 또한 미국 극단주의자의 피상적 언어(“무시무시한”, “놀라운”)로부터 사전적으로 이탈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CEV:

우리는 무시무시한 고난을 공유한다.

그러나 또한 그가 주는 놀라운 위로도 공유한다.

이기적이지 않은 강조를 복원시키려면, 조정이 필요하다.

낫설게 하기 번역: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경우에 그득한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위로도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득하다.

이런 식의 번역으로, 바울의 엄숙함에 부합되는 매우 근접한 위상어로 조정된다. 또한 신적인 것은 바울 논거의 적응점으로 재배치된다.

이러한 예들은, 낯설게 하기 번역이 길들이기 접근에 비해 어떤 것을 산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견본들일 뿐이다. 이국화 접근과 경합하는 길들이기 번역에 응수할 때는, 외국 본문에 맹종하듯 ‘충성하는’ 것(이 자체로는 ‘번역투’로 쓰인 번역을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이 목표가 아님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목표는 외국 본문의 섬세함과 미세한 변수들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번역할 때 또 다른 종류의 유창함을 얻는 것이다. 이로써 수용 문화의 가치관에 잠식되는 것을 막는다. 또한, 저자와 외국 문화의 가치관이, 번역문을 수용하는 독자와 문화의 가치관과 비평적으로 결합되게 한다. 독서를 방해하거나 당혹감을 일으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목표는, 수용 문화가 이국적 실현성에 투과되고 접목될 수 있도록, 독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 기독교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고자 할 때는, 역사 이래 모든 교회가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거룩한 문서에 대한 ‘읽기들’을 도전하는, 약간 두려운 과업에 직면해야 한다. 이런 읽기들을 소유하고 생산하고 그들 전통 속에 영속시킨 공동체에게는 이것들이 ‘익숙할’ 것이라 내가 추정해도 정당하겠지만, 그렇다고 이 점이 ‘낯설게 하기’도 장차 묵인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 인류 교회 내에서 작동하는 이 원동력은, 문학적 번역을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세계에서 작동하는 힘과 유사하다. 그 세계에서도 출판인들은 가독성과 수용성에 대한 기준과 규범을 제정한다.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윤리적 싸움이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확실한 결과는 요원하다.

#### <주요어>

이국화, 길들이기, 낯설게 하기, 유창함, 목소리.

<Abstract>

### **A Case for De-familiarizing 2 Corinthians**

Dr. Philip H. Towner  
(Dean of Nida Institute, American Bible Society)

Bible translation has mainly been separated off from the larger world of literary and commercial translation. While in some respects this is understandable, in many other ways it has meant that Bible translation has been slow to subject itself to the critique and refinement characteristic of the activity of translation within the academic and scholarly context of Translation Studies. This paper aims to situate the task of Bible translation precisely within this context. It will especially seek to evaluate the translation of parts of 2 Corinthia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ramework created by the foreignization/ domestication discussion in Translation studies. This study will subject the CEV to an analysis of the effects on translation of a program of extreme domestication, and offer examples of how “de-familiarization” helps to restore access to the various “voices” of the text.